

易地思之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장 최인선

지난 가을학회에서 무거운 얘기를 하여 여러 사람이 남 다르게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요즘 세상은 무겁고 딱딱한 것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지금 껏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토로하게 된다. 학회 담당자가 요청하였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을 수 있으나 알레르기 학회활동과 관련된 좋은 얘기들은 그 분야에 유능한 분들이 해왔고 또 계속할 것이며, 나는 내가 절실히 느끼고 고뇌하였던 문제들에 대해 학회원들이, 특히 후배들이 살아가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한다.

아직 우리 대학과 대학병원 계시판에 ‘易地思之’란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내 글과 바로 앞에 게시했던 ‘다 부질 없는 것을’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자 한다. 한국인은 머리가 좋아서 학문적 업적 등 많은 것을 성취할 수는 있으나 인생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할 때 주위에서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좋은 머리가 사회적 채양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지난해에 회갑을 지내고, ‘다 부질 없는 것을’이라 게시했던 글이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70년도 62세에서 현재 남 77세, 여 84세로 많이 늘긴 하였다. 이제 기대여명이 20.5년이라고는 하나 주위에서 적잖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느껴진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찌랴! 속 터져 죽느니 생긴대로 살아라고 집 사람도 포기 했다 소리한다.

사실 만사가 다 부질 없는 것 아니던가! 무엇에 얹매어 아등바등하는가!

창 너머로 보이는 대학에 다닌지 엊그제 같은데 정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으니 열심히 살아라 학생들에게 말하기는 하였다. 어렵기는 해도 길게 보아서 “그때 내가 참 잘 했었어”라고 되돌아 볼 수 있다면, 김연아가 멋있게 performance하듯 당당하게 잘 해내어 스스로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오죽 좋으랴!

일인당 GDP 80 달러 시대에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浮黃나서 떠난 마을 사람 소식을 들으며 군말 없이 싫은 무밥으로 허기 떼우며 살다가 2만 달리를 넘기까지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날들이 走馬燈같이 스쳐간다. “내과의 傳說”이라 들을 정도로 超人の 힘으로도 부족할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해내왔지만 마음 한 구석은 무언가 허전하고 달리 살 수도 있지 않았나 의문이 꿈틀거린다.

합리적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생각을 잘 한다는 친구의 말처럼 처음부터 기대를 모두 버렸어야 하는 것인데, 기대가 커던 모양이다. 一切皆苦唯心造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성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혼자서만 꼬무락거리며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을 아예 기대하지도 않거나 고약스럽게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질 없는 것, 다 내버리고 말 것인가?

헌법 위의 폐법. 서양인은 이성적 사고를 하는데 비해 한국인은 감성적 사고를 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진리(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추구하는 대학에서 마저도 전후 사정을 따져서 차분히 생각하기보다 親疎관계, 동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은 보류하고 휘둘리는 것을 적잖이 본다. 엄격하게 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를 쓰면, 특히나 다수가 그러면 어찌지 못하고 쩔쩔매는 데 그치지 않고 거꾸로 그것이 옳은가 하고 헷갈려하는 멘탈 붕괴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다. 정신 차리자.

혼자 호흡기혈액내과를 몽땅 맡아 다른 사람에 비해 5-10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애기한 것을 “얼떨리우스賞” 공개 수여한 집단, 의학이 전문화되어 있고 의사의 진료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음이 의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진료와 상반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전공의의 행위에 대해 “징계감도 아니다”고 눈 뜬 사람 코 베어 먹기식 행위를 한 집단이 수가 많으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이 옳다고 주장할 것인가! “헌법 위에 폐법”이 있어 집단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문제 있으면 법에 호소하라 배째라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것을 자주 본다.

인륜도덕이 시궁창에 처박힌 세상이라 옳은 말을 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 조심해야겠다. 그러나 나는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많이 배워 아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을 자주 해야 이 사회가 바로 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수십년을 걸쳐 새 학기 의대 첫 강의시간이면 맨 먼저 말해왔던 것이 “철학도 없이 의학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이다. 세태가 옛날에 비해 갈수록 이런 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사춘기가 지나면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공주병, 왕자병 환자가 늘고, 나이 들어도 superego 형성이 잘 안된 자들을 많이 보게 되니 그렇다.

易地思之. Psychodrama 그리고 夫婦세미나와 같이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에 좋은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경험하고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易地思之)해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 내 시각으로만 보고 판단하였을 때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입장을 바꾸어 보면 그리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물론 易地思之하였을 때 거꾸로 상대가 옳았던 것을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뒤집어서 내 자존심을 구기거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하여 헷갈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혹은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 살아오면서 인격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을 크게 보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psychodynamic을 생각하면서 차분히 그에 맞는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자신이 바라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임에도 어려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면 남에 대한 배려는커녕 지독한 자기중심적 思考로 사회를 어지럽힌다.